

BRIEF

Vol. 12

2022.08.



작성: 이정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3층 T.055-713-7074 F.055-713-7093 www.gnwff.or.kr

2020년 경남 지역성평등지수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¹⁾

01.

지역성평등지수 개요

02.

2020년 경남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03.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 신규지표

04.

지역성평등지수 분석을 통한 핵심 개선시책 제안

-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지역별 성평등 정책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표로 경상남도는 2015년 중하위 지역에서 2018년, 2019년에 하위지역으로 하락하였다가 2020년 다시 중하위 지역으로 상승함
- 여성가족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또한 개편을 예고한 상태이므로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에 따른 경남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상남도의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지표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에 맞춰 경남의 현황을 반영한 핵심 개선시책을 제안하고자 함

01 지역성평등지수 개요

-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부터 추진되었다가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제19조)를 갖추게 됨
-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영역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 성별 임금격차 성비 / 상용근로자 성비
	의사결정	■ 광역·기초의원 성비 /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 관리자 성비 / 위원회 위원 성비
	교육·직업훈련	■ 평균 교육연수 성비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 기초생활 수급자 성비
	보건	■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별 격차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안전	■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성비 /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 가사 노동시간 성비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 육아휴직 성비
	문화·정보	■ 여가시간 성비 / 여가만족도 성비 / 인터넷 이용률 성비

¹⁾ 이 글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 현안과제인 「2020년 경남 지역성평등지수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 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하였으며, 지역성평등지수 지표값(단위: 점)은 여성가족부(2021)의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02 2020년 경남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1) 총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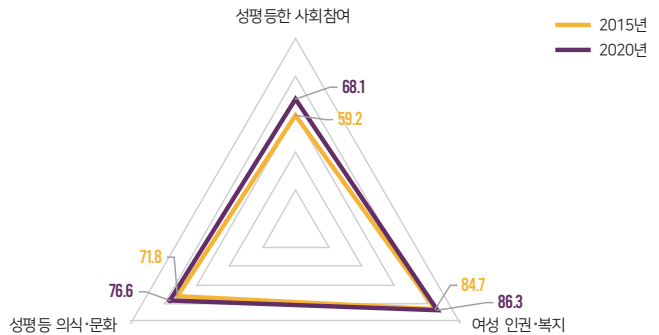
- 2020년 경남 지역성평등지수는 2018년, 2019년 하위 지역에서 중하위 지역으로 한 단계 상승함
- 경남의 지역성평등지수는 중하위 또는 하위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는 경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전통적 가부장 문화의 영향력이 크고 성평등 조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2 지역성평등지수 등급 변화 (2015-2020)

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위 지역 (Level-1)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대전 전북	대구 대전 전북 제주	대구 부산 서울 제주	광주 대전 부산 제주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제주
중상위 지역 (Level-2)	강원 광주 전북 제주	강원 부산 서울 제주	강원 광주 부산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충북	경기 대구 서울 충북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중하위 지역 (Level-3)	경기 경남 인천 충북	경기 경남 인천 전남	경기 경남 울산 인천	강원 광주 울산 전북	강원 울산 인천 전북	강원 경기 경남 충북
하위 지역 (Level-4)	경북 울산 전남 충남	경북 울산 충남 충북	경북 전남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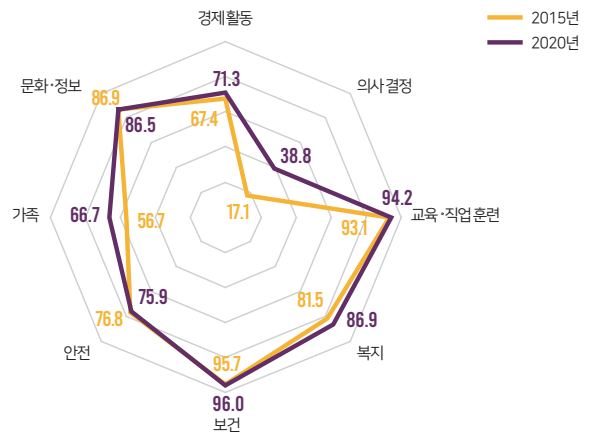
-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지역성평등지수 변화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점수도 소폭 상승함

그림 1 경남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변화 (201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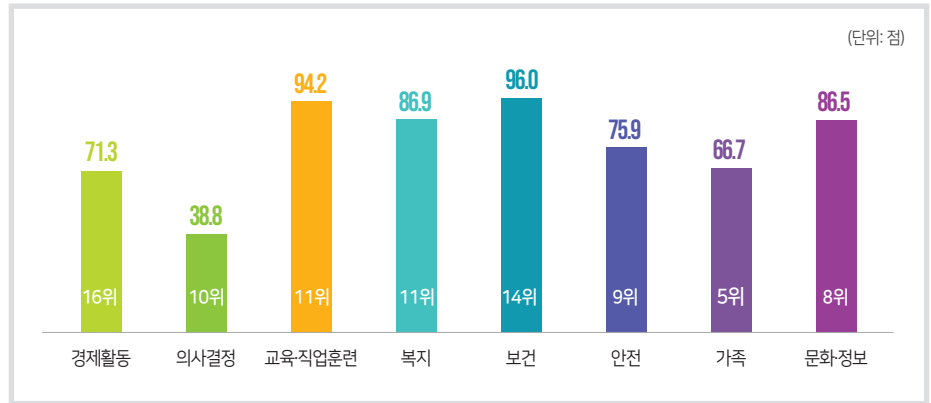
- 지역성평등지수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8개 분야 중 의사결정 분야의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고, 대부분 분야의 점수가 상승하였지만 안전과 문화·정보 분야 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경남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변화 (2015, 2020)



- 2020년 경남 지역성평등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8개 분야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분야는 보건(96.0점)이며, 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38.8점)으로 나타남

그림 3 2020년 경남 지역 성평등지수 분야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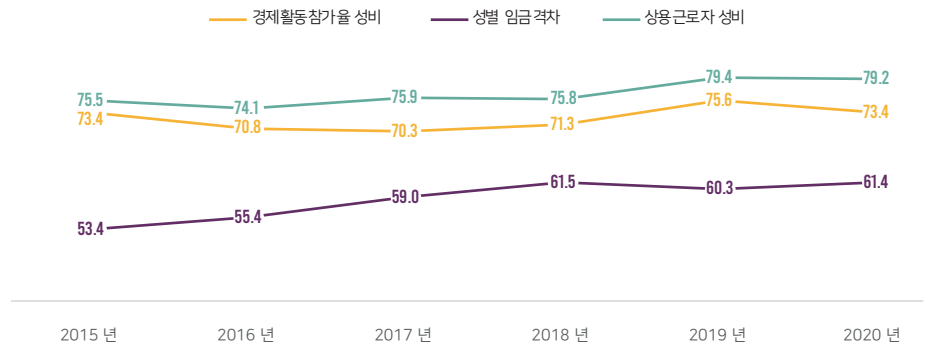


(2) 분야별 세부지표 분석

① 경제활동 분야

-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67.4점에서 2020년 71.3점으로 점수는 향상되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순위는 2015년 14위에서 2020년 16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5년 73.4점, 2020년에도 동일하게 73.4점이며, 성별 임금격차는 2015년 53.4점에서 2020년 61.4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용근로자 성비는 2015년 75.5점에서 2020년 79.2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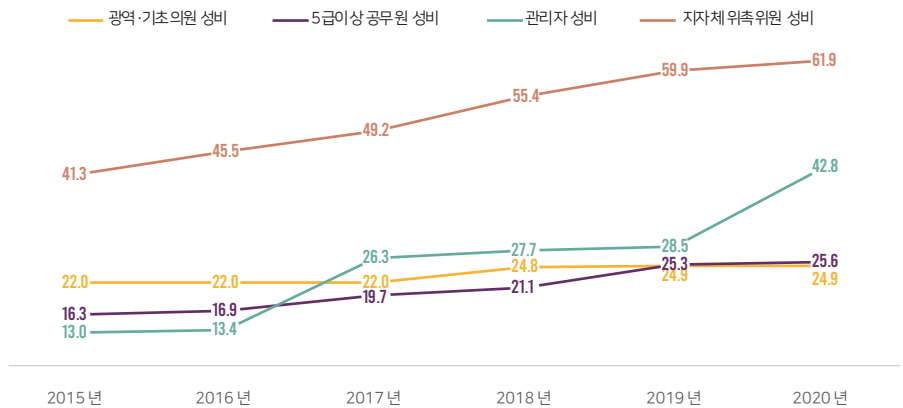
그림 4 경제활동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지수 변화 (2015-2020)



② 의사결정 분야

- 의사결정 분야는 2015년 17.1점에서 2020년 38.8점으로 점수가 향상되었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순위도 2015년 14위에서 2020년 10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광역·기초의원 성비는 2015년 22.0점에서 2020년 24.9점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2015년 16.3점에서 2020년 25.6점으로 상승하였고, 관리자 성비는 2015년 13.0점에서 2020년 42.8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지자체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또한 2015년 41.3점에서 2020년 61.9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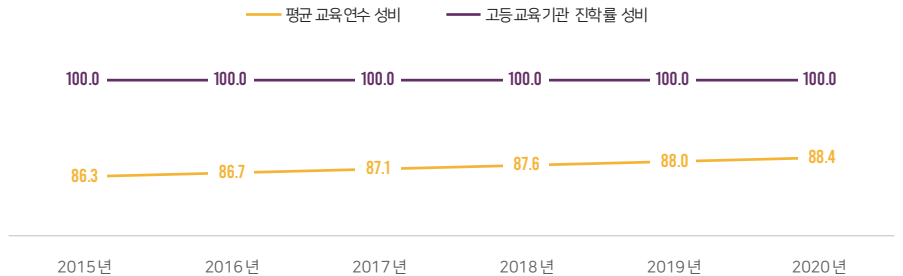
그림 5 의사결정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지수 변화
(2015-2020)



③ 교육·직업훈련 분야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5년 93.1점에서 2020년 94.2점으로 점수는 향상되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순위는 2015년 9위에서 2020년 11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평균 교육연수 성비는 2015년 86.3점에서 2020년 88.4점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평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성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100점 만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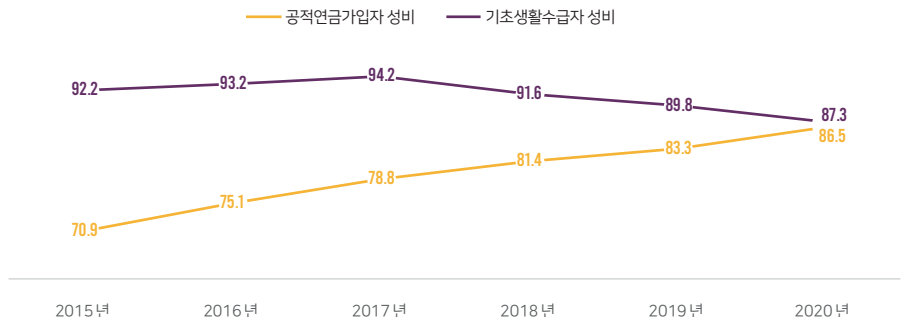
그림 6 교육·직업훈련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지수 변화
(2015-2020)



④ 복지 분야

- 복지 분야는 2015년 81.5점에서 2020년 86.9점으로 점수가 지속적으로 향상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순위도 2015년 13위에서 2020년 11위로 상승함
-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2015년 70.9점에서 2020년 86.5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2015년 92.2점에서 2020년 87.3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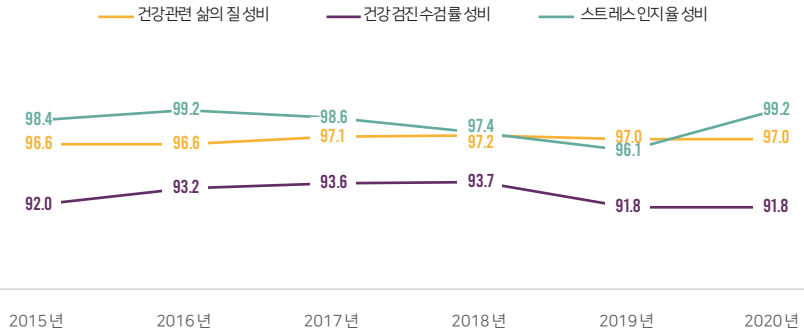
그림 7 복지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지수 변화
(2015-2020)



⑤ 보건 분야

- 보건 분야는 2015년 95.7점에서 2020년 96.0점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순위도 2015년 15위에서 2020년 14위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는 2015년 96.6점에서 2020년 97.0점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5년 92.0점에서 2020년 소폭 하락한 91.8점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2015년 98.4점에서 2020년에는 99.2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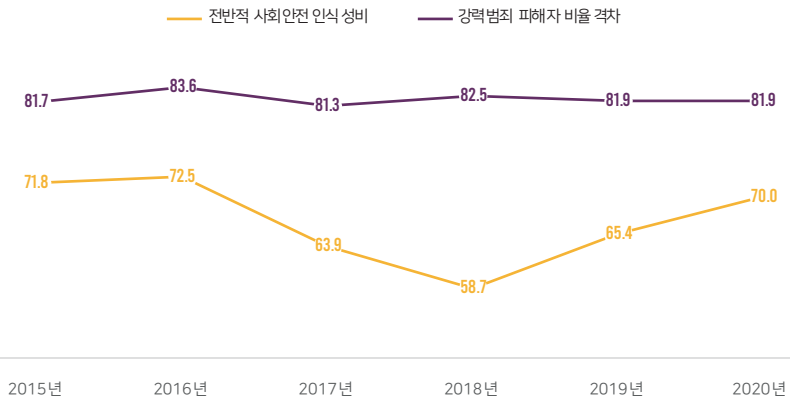
그림 8 보건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지수 변화
(2015-2020)



⑥ 안전 분야

- 안전 분야는 2015년 76.8점에서 2020년 75.9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순위도 2015년 4위에서 2020년 9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성비는 2015년 71.8점에서 2020년 70.0점으로 하락하였고,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성비는 2015년 81.7점에서 2020년 81.9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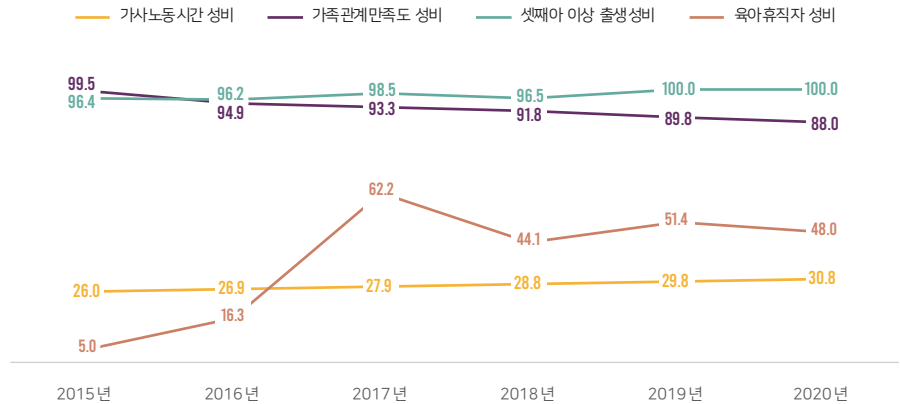
그림 9 안전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지수 변화
(2015-2020)



⑦ 가족 분야

- 가족 분야는 2015년 56.7점에서 2020년에는 66.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순위도 2015년 9위에서 2020년 5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2015년 26.0점에서 2020년 30.8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승하였으며,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5년 99.5점에서 2020년 88.0점으로 하락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5년 96.4점에서 2020년 100.0점 만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육아휴직자 성비는 2015년 5.0점에서 2020년 48.0점으로 큰 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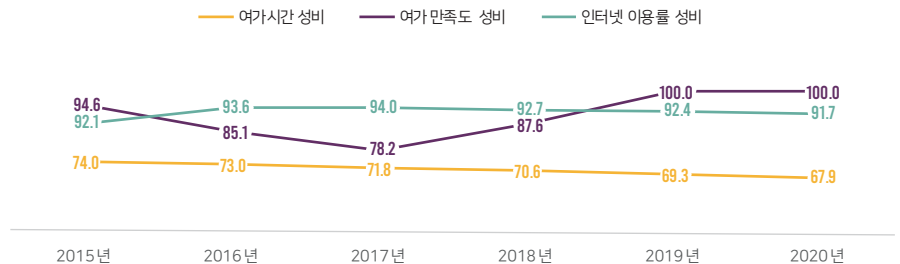
그림 10 가족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지수 변화
(2015-2020)



⑧ 문화·정보 분야

-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86.9점에서 2020년 86.5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국 17개 광역자치 단체와 비교한 순위도 2015년 5위에서 2020년 8위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5년 74.0점에서 2020년 67.9점으로 하락하였으며,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5년 94.6점에서 2020년 100.0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 성비는 2015년 92.1점에서 2020년 91.7점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문화·정보 분야
세부지표 성평등지수 변화
(2015-2020)



03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 신규지표

- 여성가족부는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을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1년 12월 지수 개편안을 확정 발표함
 - 지역성평등지수는 현재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에서 3대 목표 7개 영역 20개 지표로 변경되며, 기존의 23개 세부 지표 중 12개 지표가 삭제되고 9개 지표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됨
-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의 신규지표에 대한 경남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경남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²⁾
 - 9개 신규지표 중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는 통계 원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8개 신규지표에 대한 경남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은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상위권, 노동시장 직종 분리 현황은 중상위권, 고용률 성비,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성비, 주관적 건강수준 성비, 공적연금 수급률 성비, 성역할 고정관념 비동의 비율은 중위권, 기대수명 성비는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에 관한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지역성평등지수의 정확한 측정지표는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그림12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

주: ■ 삭제 지표 ■ 신규 지표

현행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삭제 12개)

영역	분야(가중치)	지표
사회참여	의사결정 (0.13)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위원
	경제활동 (0.19)	경제활동참가율(15~64)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교육직업훈련 (0.14)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인권복지	복지 (0.1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건강관련 삶의 질 성별 격차
	보건 (0.1)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안전 (0.12)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성비	
의식문화	가족 (0.11)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 참여 성비
		여가시간 성비
	문화정보 (0.08)	여가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개편(안) 3대 목표, 7개 영역, 20개 지표(신규 9개)

목표	영역(가중치)	지표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0.143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0.1761)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고용률
		상용근로자 비율
	소득 (0.1635)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임금격차
교육 (0.0809) *최저	교육 (0.0809) *최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수급률
		평균 교육 연수
건강 (0.0854)	건강 (0.085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명
평등한 관계	돌봄 (0.1683)	정신건강(스트레스 비인지율)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사용
젠더의식 (0.1824) *최고	젠더의식 (0.1824) *최고	성역할 고정관념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

04 지역성평등지수 분석을 통한 핵심 개선시책 제안

① 경상남도 지역성평등지수 종합 분석

- 「2021 지역성평등지수」 보고서에서는 경남이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것은 “의사결정, 안전 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지만 “경제활동참가율, 기초생활수급자의 하락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표 3 경상남도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구분		내용	
성평등 순위	종합등급	■ 2018년 하위권→2019년 하위권→2020년 중하위권	
	분야	상위	■ 가족
		하위	■ 경제활동, 보건
	지표	상위	■ 관리자 비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여가 만족도
하위		■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전년 대비 등급변화의 주된 원인		■ 8개 분야 중 경제활동, 보건 분야가 하위권이지만 의사결정, 안전 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1단계 상승함. 관리자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등에서 개선이 크지만 경제활동참가율, 기초생활수급자의 하락은 위험 요인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		■ 2020년 기준 성평등 30점 이상 50점 미만 지표 :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자 ■ 2020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하는 지표 : 경제활동 참가율, 상용근로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② 핵심 개선시책 제안

■ 핵심 개선시책 1

[경제활동 분야]

여성 일자리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 지역성평등지수 8개 분야 세부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성평등지수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경제활동·의사결정·보건 분야를 선정함

■ 경제활동 분야는 전국 16위로 하위권에 해당하고, 경제활동 분야의 모든 세부지표도 전국 하위권에 해당하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순위가 하락하였으므로 지역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임

→ 경남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성별 임금격차 개선, 상용근로자 성비개선)를 위해 여성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필요 있음

→ 특히 경제활동 분야는 고용률,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등과 같이 2021년부터 세부지표의 변경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변경된 지표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필요

■ 핵심 개선시책 2

[의사결정 분야]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 의사결정 분야는 전국 10위로 중위권에 해당하지만 민간 부문의 관리자 비율을 제외한 다른 세부지표는 모두 하위권에 해당하므로 공공 부문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의사결정 분야는 2021년부터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이 세부지표로 추가되어 더 강화될 예정이므로 경상남도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지역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핵심 개선시책 3

[보건 분야]

여성 건강 체감도 향상 정책

■ 보건 분야는 전국 14위로 하위권에 해당하고, 세부지표 중에서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하위권,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별 격차와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중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들의 건강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③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 2021년부터 적용되는 지역성평등지수 개편(안)에 따라 신규지표를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 필요

→ 초중고 교장·교감 성비를 살펴보면, 정규교원 수는 여성이 많지만 교장·교감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직 사회 내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고용률 성비를 살펴보면, 경남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성별 고용률 격차도 전국보다 크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여성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노동시장 직종 분리를 살펴보면, 경남은 특히 관리자 직종의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경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경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성별 수급률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경남은 남녀 모두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성별 격차도 전국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기대수명 성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기대수명이 낮고 성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성역할 고정관념을 살펴보면, 경남은 특히 가족 내 여성의 역할(가사, 가족 돌봄)에 대한 고정관념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로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